

[번역]

GCF, 국가적응계획 무상증여 지원 승인 첫 사례 - 라이베리아, 네팔

2016.11.14, 마라케시 - 녹색기후기금(GCF)은 국가적응계획(NAP) 개발과정을 위한 무상증여 지원을 처음 승인했다.

이로써 라이베리아와 네팔은 GCF 능력배양 프로그램으로 각각 220만 달러, 290만 달러를 받게 되며, 라이베리아는 UNDP, 네팔은 UNEP가 국가적응계획(NAP) 실행을 돕는 이행 파트너가 된다.

이번 무상증여 지원 승인은 살라헤딘 메주아르 COP22 의장이 주재한 국가적응계획 추진 경과 고위급 행사에서 자히르 파키르 GCF 공동이사과 하비에르 만자나레스 GCF 사무총장 대행이 발표했다.

GCF 이사회는 올해 6월 국가적응계획(NAP) 마련 및 이행을 위한 지원을 촉진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NAP 설계를 위해 GCF 능력배양사업으로 한 국가 당 3백만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GCF는 결정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해왔으며, 2달이 채 안되어 라이베리아와 네팔의 능력배양 제안서를 승인했다. GCF는 추가로 2개의 제안서 초안 및 14개 지원 의향을 접수한 상태이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quick-take-gcf-approves-first-fast-track-national-adaptation-plan-grants-for-liberia-and-nepal?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